

북한인권법 부활, 보편적가치 회복을 위한 국민 결집을 호소함! -유엔 인권이사회의 22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일시 : 2024. 4. 9(화) 13:30

장소 : 한변 회의실(교대역1번출구 우측 길50M 전방,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42 동진빌딩 6층)



1. 지난 4일 제네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이하여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하였다. 크게 환영한다.
2.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COI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국회의원 236명 중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되었으나 8년이 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사문화되어 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통진당 세력과 한 몸이 되어 전대미문의 천박한 여성비하와 극단적 망언, 위법적 사기대출, 내로남불 대물림, 40억 전관 예우 후보들을 내세워 국회의 개헌선까지 넘보고 있다.
3. 북한인권법은 2,500만 북한동포를 인권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불공정과 내로남불, 반문명적 사대종북과 반시장적 포퓰리즘 부패, 탈원전 등으로 국정을 파탄내어 정권 교체를 당한 민주당에게 흑역사를 반복케 할 수는 없다. 모레 마지막 본선 투표에서 우리 대한 국민은 하나로 결집하여 발전·번영·희망으로 바로 잡은 국가향로를 굳건히 지키고, 조속히 북한 인권법을 부활시켜 인류보편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2024. 4. 8.

사단법인 북한인권(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외 35개 단체